

한국어촌어항협회 정기총회 성료 연안역 종합발전과 수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공공단체로 자림매김



한국어촌어항협회는 2월 22일 오전 11시 해군호텔 1층 영빈관에서 2007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06년도 주요사업 및 결산과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보고했다.

한국어촌어항협회는 어촌·어항·어장을 연계한 연안역의 종합발전과 수산업의 기반구축이라는 경영목표를 세웠다. 올해 총 수지 예산 규모는 지난해 예산 대비 10억원이 증액된 132억원이다.

중점 전략으로 △어촌·어항·어장의 기반 조성 △어항관리 효율화 △어항 및 연안수역의 환경 개선 △어촌·어항의 관광 진흥 및 문화창달 △자립기반 및 지식경영 확립 등을 채택했다.

총회 장관 치사



해양수산부

평소 존경하는 배평암 회장님을 비롯한 한국어촌어항협회 회원 여러분!

먼저 오늘 뜻 깊은 한국어촌어항협회의 2007년도 정기총회를 맞이하여 초청해주신 배평암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에게 감사 드리며, 아울러 지난 한 해 우리나라 어촌·어항의 발전에 힘써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에는 한국어촌어항협회가 기존의 어항협회를 모태로 새롭게 출범하여 다각적인 사업들을 본격 추진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어촌 찾아가기' 행사, 어촌체험마을을 건설링, 어촌·어항 발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국가어항의 안전점검, 어항관련 기술의 연구개발과 해양폐기물 수거 사업을 전개하는 등 명실상부한 어촌·어항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친애하는 어촌·어항 관계자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 어촌과 수산업은 국내외의 환경변화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여 어촌과 어업인이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특히, 수산업 전체의 인프라 역할을 하는 어촌어항 부분은 지난해 보다 175억원이 증액된 2,635억원의 예산을 올해 투입하여 어촌·어항 기반시설과 관광어촌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국가 및 지방어항의 우선 완공을 기하는 한편, 최근 어촌관광 수요 증가에 부응한 어촌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2009년까지 관광어촌의 모델지역 24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해양레저형·휴양형 등 다양한 기능의 어촌모델을 새로이 개발하는 등 어촌관광 및 정주여건 확충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여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아울러, 어촌관광 붐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올해 말까지 500사 500촌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상호 교류를 촉진하는 등, 도시와 어촌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어촌·어항인 여러분!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부의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경험과 적극적인 협조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총회를 계기로 여러분들은 시대를 앞서가는 창의력과 생동감 넘치는 추진력을 결집하여 올 한 해가 어촌·어항 발전에 큰 족적을 남기는 해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한국어촌어항협회 2007년도 정기 총회를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관계자 여러분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07. 2. 22.

해양수산부 장관 김 성 진



▲ 인사말을 하고 있는 배평암 한국어촌어항협회 회장.

배평암 한국어촌어항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수산이라는 개념이 수계(水界)와 관련된 모든 부분을 총괄하는 산업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하고 “이러한 새로운 개념을 우리 어촌에 접목시키기 위하여 「어촌·어항·어장을 연계한 수산업의 기반 구축」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착실히 사업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총회를 주재하고 있는 배평암 회장.



▲ 해양수산부 장관 치사를 대독하고 있는 주성호 수산정책국장.

이날 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은 주성호 수산정책국장이 대독한 치사를 통해 배평암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정부는 어촌·어항 부문에 지난해 보다 175억원이 증액된 2,635억원의 예산을 올해 투입하여 어촌·어항 기반시설과 관광어촌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어촌·어항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이환범 (주)대영엔지니어링 회장(右)에게 제6회 자랑스런 어촌어항인 대상을 수여했다.



▲ 어촌어항 및 협회 발전에 공이 큰 안승환 (주)한국해양 기술 대표이사 등 5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

▲ 제6회 자랑스런 어항인 대상 수상자

- 이환범 (주)대영엔지니어링 회장

▲ 감사패 수여자

- 안승환 (주)한국해양기술 대표이사

- 김덕안 (주)C&I플래너스 대표이사

- 전충남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주무관

- 변민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주무관

▲ 표창패 수여자

- 윤성구 수일해저개발(주) 차장



▲ 총회가 끝난 후 오찬 때 손정식 고문, 김진열 협회 이사 등이 협회 발전을 위한 건배 제의를 했다.



▲ 협회 정체성과 발전방향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이 있었다.